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2년 6월은 全世界 林業人들에게 있어서 特別한 意味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우리의 努力은 環境分野와 關聯하여 傳統 林學의 새 領域을 개척하는 일이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비단 自然科學分野 뿐만 아니라, 社會科學領域까지도, 특히 國際政治 領域까지 包含되지 않고서는 現實問題를 다루어 갈 수 없는 狀況입니다. 그리하여 山林, 林業, 林學分野의 位相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할 줄 압니다. 環境問題를 政府에만 맡겨둘 형편이 아닙니다. 廣範圍한 民間團體들을 通하여 더욱 效果的인 環境改善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環境이데올로기가 보편성을 지니려면,

그 思想的 背景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리의 傳統的인 自然調和思想이야말로 未來社會의 自然觀으로서 世界人類앞에 내놓을만한 빛나는 文化遺産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다듬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줄 압니다.

世界 環境問題의 出發은 治山治水를 소홀히 한 所致라 생각되며, 治山治水가 政治의 要體라는 政治文化를 世界에 輸出함직도 합니다. UN이 公認한 바와같이, 2次大戰後 國土綠化에 完全 成功한 나라는 大韓民國 뿐이라 합니다마는 그동안 터득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새마을情神을 世界綠化運動에 앞장섬으로서 國威를 떨칠때까지 금이라고 확신합니다.

원목반출 극인타기제 일부 완화

독립가에겐 생산확인표로 대체검토

산림청은 그동안 벌채지에서의 원목을 반출하기전 생산량 확인과 부정 임산물의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왔던 원목에의 극인타기(極印打記)제를 독립가에 한하여 일부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의 극인 찍기 제도는 생산비의 증가와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대상이 되어 왔고, 시대적으로 부정임산물도 거의 없다싶이 된 추세임을 감안, 본회에서 독립가에 대하여는 자체 극인을 제작, 관할 시·군에 등록하여 놓고 필요시마다 인출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는 산림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선 전단계 조치로 손쉬운 산림법 시행규칙만을 개정하여 “생산확인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독립가는 종전의 극인타기 신청을 하는 대신, 생산확인표를 교부받아 자체적으로 생산확인표를 부착, 반출하게 됨으로써 시간의 절약과 생산비를 훨씬 절감하게 되고 따라서 민원도 많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